

UNESCAP초청 아프리카, 아태지역 CRVS 회의 참가 결과

I 회의 개요

- 1 회의명 : 아프리카, 아태지역 CRVS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
(Expert Group Meeting to validate the draft training-of-trainers manual on the production of vital statistics from civil registration records and Interregional seminar to exchange and discuss best practices in CRVS from Africa and Asia and the Pacific)
- 2 일시 및 장소 : 2016. 5. 30.(월) ~ 6. 3.(금),
ECA(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)
- 3 주관기관 : UNECA 및 UNESCAP
* ECA(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), ESCAP(Economical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)
- 4 참가자 : 인구동향과 김윤성서기관
- 5 회의일정

일자	주요 일정
5.28.(토)	인천 출발 → 에티오피아 도착
5.30.(월) ~6.3.(금)	아태, 아프리카 지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 회의
	전문가 회의 - CRVS 교육용 매뉴얼 초안 검토 및 8개 모듈별로 토의 세미나 - CRVS 모범사례에 대해 6개 세션별로 토의
6.4.(토)	에티오피아 출발 → 인천 도착

II 회의 내용 요지

- 1] 전문가 회의 : Expert Group Meeting to validate the draft training-of-trainers manual on the production of vital statistics from civil registration records, 5.30.(월)~6.1.(수)

※ (진행) 메뉴얼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 소개 발표 및 메뉴얼 개요, 메뉴얼 구성요소인 8개 모듈별 그룹토의 및 토의결과, 로드맵 발표

1. 메뉴얼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(발표 : 노르웨이 통계청, Helge Brunborg)

- (배경) 노르웨이통계청(Statistics Norway, SN)이 2015년에 ECA와 작성, 후에 ESCAP합류

○ SN은 CRVS에 오랜 경험 보유(1876년부터 CRVS를 작성)

* 최근 2014년에는 "Status Analysis on CRVS" 발간

○ 팔레스타인, 모잠비크, 우간다, 알바니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CRVS 프로젝트참여 및 지원

○ 현재 월드뱅크와 CRVS이러닝모듈 작업에 참여

- 도전

○ 구성 방법 : 두파트로 구분해서 많은 사례 수록

○ CRVS 체계, 동태사건 범위, 동태통계 경험 등에 국가별로 다름, 특히 아프리카에서 좋은 사례를 찾기 어려움 있음

○ 보통 어떤 것은 너무 간단하고, 또 어떤 것은 너무 어려워 적절한 테크니컬 수준을 찾아야함

○ 최근 수년간 CRVS에 관한 보고서를 반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가이드가 필요

메뉴얼은 가이드라인, 템플릿 2개의 파트로 구성

- (가이드라인) 템플릿과 템플릿 사용방법
- (템플릿) 자신의 국가에 관한 문서, 차트, 통계표 등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인구동태통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함

□ 템플릿

- (목차) 소개, CR 시스템, 데이터: 품질·범위·정의, 출생, 사망, 사망원인, 요약통계표·참고문헌·부록 등으로 구성
- (한계) CR시스템이 너무 많음, 혼인과 이혼 관련 내용의 부재, 사망원인관련 내용도 거의 없음, 동태통계로 고려되지 않는 이동에 관한 내용도 없음
- (CR 시스템) 연혁, 법적 근거, 조직, 신고절차 및 자료의 흐름, 신고에 대한 장려와 방해
- (데이터: 품질·범위·정의) 데이터의 품질, 범위, 그룹별 범위, 시계열 커버리지비율
- (출생) 사건·신생아·부모의 특징 및 위험노출인구의 특징
 - * UN권고안에 따른 통계표
- 사망, 사망원인, 요약통계표에서는 UN권고안에 따른 통계표
- (부록) 출생·사망에 대한 신고서 양식 및 보낼 수집된 자료의 총 수 등을 포함한 다른 CRVS관련 양식 및 보고서

[참고: 인구규모 및 분배]

- * 건강관련 및 통계에서는 연령, 성별에 의한 규모 지표 요구 : TFR, IMR, U5MR, MMR, 기대수명 등
- * 인구규모에 대한 자료소스
 - 센서스, 인구추계, 표본조사, 등록인구
- * CRVS는 등록인구를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유용하고, 필요

2. 메뉴얼 개요(발표 : ESCAP Consultant)

- (범위) CR로 부터 VS가 생산되는 단계까지 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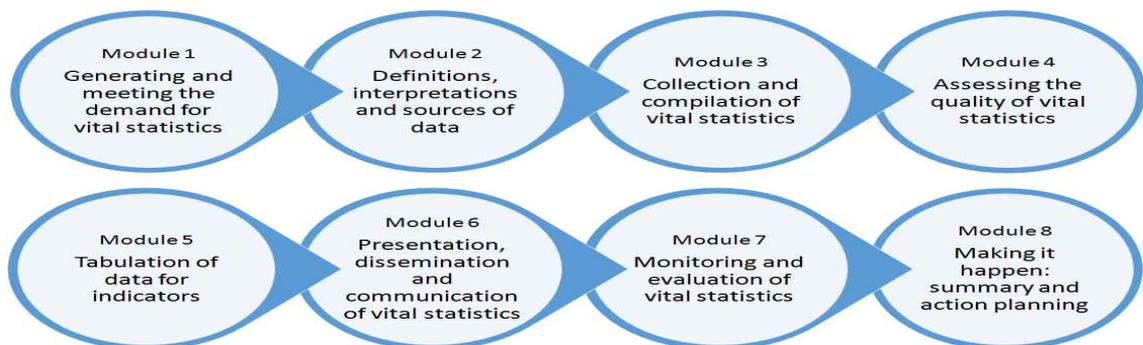
- * 우선은 출생사망에 대해서만 포괄
- (대상) 전국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훈련자

- 교육용 메뉴얼

- (목적)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하는 국가 수준의 훈련지원, 강의, 개선, 디자인 등으로 훈련자를 위한 출발점
- (내용) 인구동태통계 작성의 모든 실행 요소 포함

- 메뉴얼(초안) 구성

- 3개의 파트로 구성
 - 파트 A : 메뉴얼 디자인에 대한 출발점, 목차, 대상
 - 파트 B : 8개의 모듈로 구성



- 파트 C : 훈련 가이드

- (일정) '16. 3~5월 초안 마련, 6~7월 수정 보완, 8~12월 최종안 발표

3. 토의결과(요약)(발표 : ESCAP Consultant)

- (혼인·이혼) 템플릿에 간단한 내용 포함
- (사망원인) 중요한 통계이나, 템플릿에 포함시키기에는 복잡
 - VS보고서에 몇년 늦게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음
 - 별도의 사망원인 템플릿이 있어야 하나, 현재의 간단한 내용을 템플릿에 포함시켜야 함
 - 나라들은 인구동태보고서에는 우선적으로 출생과 사망자료를 수록함
 - 몇몇 나라들은 별도로 사망원인통계 보고서를 발간함
- 그 외 이슈
 - 가능하면 동태사건의 발생 장소/주소지
 - 지연신고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
 - 지연신고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
 - 지연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함
 -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
 - 더 많은 사례 필요하며, 이를 어디(부록?)에 수록할지 여부
 - 템플릿의 종이/온라인 버전?
 - 둘다 필요, 온라인버전은 자주 업데이트 되어야 함
- 맺음말
 - 에디팅 필요
 - 보고서의 구성은 개선되어야 하며
 - 더 많은 좋은 사례의 수록 선호

4. CRVS 메뉴얼 최종안에 대한 로드맵 제안(발표 : chief of ECA Demographic and social statistics section)

1) 예비검토를 통한 메뉴얼 최종안

a) 아프리카, 아시아에서 메뉴얼 예비검토를 위한 워크숍 준비

- 참석대상 : 정책입안자(데이터사용자), 신고 업무담당자 및 통계인/인구학자
- 추가 대상자
 - 지역 교육센터
 - 인구 교육 및 연구에 선정된 지역 대학프로그램
- 조력자 : 최소 3 전문가(CR, VS, 훈련설계 등)
- 기대효과
 - 국가사례를 포함 현 메뉴얼안의 다양한 모듈의 모든 요소에 대한 피드백
 - 모듈에 열거된 목적 달성
- 일정/자금 : 2016년 3~4분기/기존자금 사용

b) 피드백을 포함시켜 메뉴얼 수정

- 훈련설계전문가가 피드백 강화 및 수정안 작성
- 지역내 그룹 평가 및 수정안 코멘트
- 훈련설계전문가 수정안을 시행하고 신버전 메뉴얼 작성
- 일정/자금 : 2017년 1분기/훈련설계전문가를 위한 자금필요
- 작업형태 : 전산화

c) 메뉴얼의 최종안은 지역 현장 훈련 및 학술기관에 의해 사용될 예정

- 일정/자금 : 2017년 1분기 말/필요하지 않음

2) 훈련과정의 발전 및 개선

a) 지역현장훈련 및 학술기관이 메뉴얼을 바탕으로 특정교과과정을 발전시킴

- 지역 네트워크 현장훈련기관은 메뉴얼을 기초로 교과과정을 공유, 예, 아태지역의 통계훈련기관 네트워크
- 지역 현장훈련기관의 네트워크는 나라별로 다른 모듈 혹은 다른 그룹에 중점을 둔 다른 회원들에게까지 훈련계획을 발전시킴
- 정규훈련과 연구프로그램을 통합한 메뉴얼 모듈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중인 선정된 지역 학술 기관들에 지원
- 지역내 공동체를 통하여 개선
- 일정/자금 : 2017년 2~3분기/자금을 늘려야 함

b) 지역의 교육과정의 실시

- 지역 현장훈련기관은 실습과정이 있는 훈련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훈련자 훈련을 함.
- 훈련책임자는 각 나라에 있는 공무원(직원)을 훈련시킴
- 훈련책임자의 연간 지역 세미나에서의 경험 공유는 지역교과과정을 업데이트/보완하기 위한 피드백으로 제공
- 지역내 공동체를 통하여 개선
- 일정/자금 : 2017년 2분기 계속/자금을 늘려야 함

② 지역간 세미나 : **Interregional seminar** to exchange and discuss best practices in CRVS from Africa and Asia and the Pacific, 6.2.(목)~6.3.(금)

※ (진행) CRVS 개선 노력 보고, 그룹별 토의, 그룹별 토의결과 발표

1. **CRVS 개선 노력**(발표 : chief of ESCAP Population and social statistics section)

□ UNESCAP CRVS 장관급 회의(2014년)

○ 유엔 아태지역 경제사회위원회 “Asian-Pacific CRVS Decade, 2015-2024” 선포

- 아태지역에 ‘Get Every one in the Picture’ 를 선포

⇒ 2024년까지 모든 아태지역 국가에서 CRVS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

○ 지역 실천 프레임워크

- 3 목표(Goal)

· 출생, 사망과 다른 동태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신분등록

· 모든 개인은 신원과 신분상태, 권리보장을 위하여 출생사망 다른 동태사건의 신분등록에 대한 법적인 기록이 제공됨

· 등록자료에 기반한 정확한, 완벽한, 시의성있는 동태통계(사망원인 포함)가 생산되고 공표됨

- 15 이행목표(targets)

- 7 실천분야(Action Areas)

□ 72차 위원회

○ 국가보고서* : 62개 ESCAP 회원국중 37개 국가에서 제출

* 인구동태통계보고서

○ 15개 이행목표중 달성이 미비한 국가*에 대해 기술지원

* 아르메니아, 부탄, 마이크로네시아, 필리핀 등

2. 그룹별 토의 및 토의 결과 발표(발표 : 그룹조장)

* 카페 형식을 도입하여 토의. 6개 주제에 대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의에 참여하되, 구성원들은 겹치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(50분)동안 토의

- 신분등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방안
- 모든 인구동태 사건의 등록에 대한 수요 창출
- CRVS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지속가능성
- CRVS 시스템의 디지털화
- 국가적으로 CR업무와 VS 업무 개발 능력
- CRVS 시스템의 모니터링

[카페형식토의]

- 4~5명 인원으로 카페스타일의 테이블에서 토의
- 최소 3번이상 돌아가면서 토의하고, 토의시간은 약 20분씩
- 질문은 라운드회의마다 동일할 수도 있고, 다를 수 있음

[6개 토의에 대한 발표내용 요약]

- 신분등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방안
 - 외지의 신고를 위해 모바일신고 도입
 - 정부조직 이용 : CR담당자를 교장, 종교지도자 등 활용
 - 출생증명서의 발급시 처음 발급 요청에는 무료 발급
 - 여러번 방문을 줄이기 위한 신고관련 자료를 미리 정보 제공
 - 유목생활하는 사람, 빈곤계층 등을 위해 인센티브부여 등
 - 신고시간의 단축/과정을 간단히
 - 신고와 증명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함
 - 미신고 아동의 자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과태료 면제
- 모든 인구동태 사건의 등록에 대한 수요 창출
 - CR에 대한 수요창출
 -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교육, 민감화, 관심 유도

-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장벽제거(예, 비록 부(父)가 없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)
- 공공기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신고 장소를 분산시킴
- 병원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
- 법적근거체계 강화
- 사망증명서에 대한 수요창출은 장례/매장보험 정책을 촉진

○ CR로 부터 인구동태통계 창출

-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통계생산 및 공표
- CRVS 관계자에게 관심을 유발시키기위해 CRVS 데이터 서비스 (ID함께 제공)
- CRVS데이터의 디지털화로 시스템에서 자료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함.
- CRVS자료의 지역세분화/공표는 월 혹은 일단위로 발표

□ CRVS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지속가능성(합동)

○ 정치적 합의관련 긍정적인 면

- 아프리카, 아시아 등 2 대륙의 모든 나라에서 CRVS는 우선순위
- 아프리카, 아시아 장관급회의를 통하여 CRVS의 중요성 제시

○ 지속 가능성(합동) 관련 긍정적인 면

- 정부를 바꾸는 것은 모멘텀유지를 위해 주요한 논쟁
- 모든 국가는 CRVS 기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, 고위급 위원회로 유지되고 있음
- 일부 국가에서는 CRVS가 정치적 틀로 인식하기도 함.
- CRVS역할은 국가에서 합동메카니즘 구성에 다시 더 분명함

* 좋은 선례로 보건과 CRVS가 서로 활용하는 것

□ CRVS 시스템의 디지털화

[개념정의]

- * (컴퓨터화)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
- * (디지털화) 전산화로 획득한 데이터가 정보로 바꾸는 것
- * (자동화) 더 효율적이고 제시간에 맞추고, 정확성을 위해 기술적 과정을 사용하는 것

○ 디지털화 수준

-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수준부터 다른 시스템과 상호 활용이 가능한 자동화 수준 까지 디지털 수준이 국가마다 다름.

○ 교훈

- “비효율적 작업에 적용된 자동화는 비효율성을 확대할 뿐일 것이다 “ 빌게이츠
- 디지털화 과정은 종이를 컴퓨터로 단지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과정의 혁신을 의미
- 정보통신기술(ICT)은 조력자로 보이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업무기능 /과정을 지원한다.
- 다른 시스템간의 통합 및 연계는 디지털과정의 시작단계부터 고려해야하며, 또한 처음부터 이해관계자도 포함시켜야 함
-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, 명확하고 적절한 거버넌스의 역할은 CRVS 당국이 설립해야하며, ICT부서는 CRVS 디지털과정에 참여해야함

□ 국가적으로 CR업무와 VS 업무 개발 능력

○ 애로사항

- 개발능력은 막대한 비용초래(담당자의 교육 등)
- 주요 CR 및 VS 이해관계자들간의 협력이 초기단계라, 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시간 소비

-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화하는 데 투자

○ 주요 교훈

- CR+V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근거와 도구가 필요
- 교육용툴 개발(예, CA 및 SP툴 및 가이드라인; CRVS 디지털화 가이드라인; VS 교육용 메뉴얼 개발 중
-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지역별로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

□ CRVS 시스템의 모니터링

“ 토론의 의견은 다 다르지만 주제는 공통적으로 모아짐”

○ VS는 그자체로 주요한 모니터링 도구

- 모든 이해관계자(보건, CR, 통계, 학계)를 포함시키는 과정
- 쟁점과 교훈을 보고서에서 알수 있음
- 주/월/분기 등 정기적으로 보고

○ 자동화시스템은 모니터링을 수행하기에 수월

○ 권고

- 모니터링 이행의 주요 메카니즘인 인구동태통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생산
 - * 모든 관계자는 보고서 생산에 참여해야함
- 정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모니터링도구를 개발해야함
- 지역위원회는 모니터링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함
- CRVS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현행의 가이드라인이 기반이되어야함
 - 노르웨이통계청의 경우와 같이 모니터링이행을 위한 좋은 사례 포함
 - ESCAP 지역 실천프레임워크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좋은 과정
 - 아프리카지역은 다음주에 모니터링포맷을 발표할 예정

III

소감 및 시사점

□ CRVS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업

- 본 회의 및 세미나에서는 CRVS에 대한 매뉴얼 검토와 그룹별 토의를 거쳐 CRVS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의 국가들의 CRVS 체계 구축 정도 및 인구동태통계 분석 수준을 알 수 있었음
- CRVS관련 회의는 장관급회의를 비롯하여 지역간회의 등을 통해 CRVS구축 및 인구동태통계 분석 결과의 완전성 사업을 추진 중
 - 각 국은 이에 대한 이행 정도를 국가보고서로 ECA/ESCAP 제출하며, 목표 달성을 위해 ECA/ESCAP의 관리를 받고 있음
 - 대부분의 국가들은 CRVS구축 및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 노르웨이 통계청 등 선진국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음

□ CRVS관련 우리나라는 선진 수준

- 본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CRVS 구축단계이거나, 인프라가 미비해서 전산 운영이 원활치 않아 인구동태통계 결과가 1년 내에 공표되지 못하고 있으며, 사망원인통계 작성에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그룹별 토의를 통해 회의 참가자들도 대한민국의 CRVS 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, 과거 전혀 인식하지 못한 국가들도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, CRVS 분야에서의 통계청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
- 이외에도 개인적으로도 아프리카, 아시아 지역, 국제기구 등 CRVS 관련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음